

John Oswalt 박사, Kings, 세션 10, 열왕기상 11장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마지막 비문인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신명기 17장 15-19절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명기에서 주시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 자기를 위하여 말을 많이 얻지 말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니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이다. 3. 그는 자신을 위해 과도한 은과 금을 획득하지도 않습니다.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에게는 병거가 1,400대, 말은 12,000필 있었는데, 병거성에도 두었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산기슭의 뽕나무 같이 많이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은 이집트와 시칠리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왕실 상인들은 시칠리아에서 현재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은 150세겔을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헷 사람과 아람 사람의 모든 왕들에게도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헷 족속 등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니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좇게 될 것임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으로 붙잡았습니다. 그에게는 왕족의 아내가 700명 있었고 첩이 300명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를 그릇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신명기에서 이 부분의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승인을 받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할지니 그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나요?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Kings를 진행하면서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간단한 진리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활력을 주고 훈련시키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나에게 분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걸 알았더라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자신을 보호하지는 않았을 거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부와 성경에 관한 한 부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절에서 이 타국인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너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의 왕국이 세워진 후,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에 관한 그 사랑스러운 진술의 시작에, 그 전에 맨 첫 번째 구절에서 솔로몬은 바로와 동맹을 맺고 애굽으로 와서 결혼했습니다. 그의 딸. 그는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 여자를 다윗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 책의 편집자, 저자, 편찬자가 여기 11장에서는 금지 사항을 언급했지만 3장에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연습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강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는 통치 초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편집자는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를 기다리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좋아요? 예? 3절에서는 그가 그 시점에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러다가 그는 한 가지로 멈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이미 완료된 거래였습니다. 예? 그런데 왜 저자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지 않는 걸까요? 이제 당신은 오스왈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전달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 공부의 일부이며 관찰하고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여기까지 편집자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빛나는 사진에서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가 여기 11시에 오면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제 그것을 망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것은 사사기와 매우 유사하다. 저자는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서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 생각엔 수년 동안 저는 3장 1절을 맴돌다가 그가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구절을 읽었지만 그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3장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했듯이, 내 말은, 대단한 거래, 대단한 거래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이제 이집트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당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와, 그 사람이 나랑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의 딸 중 한 명을 주겠다고요? 아, 그런 거래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일합니다. 그런 거래. 그런 거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8장 뒤에 사악한 씨앗이 꽃피는 것을 봅니다. 포로 생활과 귀환 후 수백 년이 지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환 후 100년이 지난 지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와 통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편협함의 대표적인 예로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파탄할 정도로 불친절합니다.

글쎄, 나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종교적 편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국가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편협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세우신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세우신 대로 그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예.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데이빗? 글쎄요, 한 가지 사실은 이 불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신앙 체계,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직업을 따르지 않는 한 아빠와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마와 함께 있어요.

그 아이들은 모두 작은 이교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또 다른 점은 그 사람도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고, 물방울이 터질 때까지 오랫동안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불신자와의 통혼은 최소한 긴장을 위한 처방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고 싶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내 교회에 가도 돼. 긴장.

그리고 최악의 경우 비극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과 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그것을 말과 소가 함께 멩에를 메는 것과 같이 불평등한 멩에를 메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몸이 되어야 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부로서 두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부부의 개인으로서도 두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은 예전처럼 십대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것을 망치려고 노력합니다. 불신자와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데이트라고 생각했던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규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 소녀가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둘 다 막 표류한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여전히 교회에 다녔지만 그녀의 믿음은 약해지고 약해졌으며, 그녀의 자녀들은 종종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여기서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뿐이었다면 잊어버리세요.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신앙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르쿠스가 언급한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너무 미약했을 때 단지 이방 신의 딸을 여호와의 성소로 데려오는 것이 말라기의 표현대로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이방 신의 딸을 성소에 끌어 들여 그 언약을 어겼느니라. 글썄요, 그들은 그녀를 성전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성소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성소. 당신은 하나님의 성소에 이교주의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적 편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와 믿음의 보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손주들과 그 점을 강조하려는 다른 사람들과 기회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이들은 애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4절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확실히 솔로몬의 마음이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당신의 시트에, 나는 당신에게 히브리어 단어의 다른 번역본을 주었습니다.

King James는 완벽하고 ESV는 전적으로 진실하며 ASV는 전적으로 헌신적이며 IB는 전적으로 헌신적이며 LT는 전적으로 충실합니다. 그들 모두는 전체적, 그 자체로 완전한 무언가라는 개념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삶의 모든 측면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은 하나님의 요구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야? 당신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좋아, 나는 당신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나요?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좋아,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를 위해 세상을 정의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 알았어.

어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어둠의 왕국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왕국이나? 알았어, 알았어. 그리스어로 스토이키아(stoikia)라는 뜻인데... 그럼 수도원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아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태도와 사고방식이죠.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 봅시다. 세상 제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힘은 당신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좋아요. 다른 분들을 위해 여기에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정치적으로 정확합니다.

정치적으로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또 뭐야? 자신을 만족시키세요.

괜찮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만족시키십시오. 또 뭐야? 현재 유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따르십시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많은 것 외에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좋아요.

물건은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주관적입니다. 물건은 모든 것에 대한 보안 수단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훌륭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6번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컴퓨터를 열다가 비밀번호에 잘못된 글자 하나를 넣었더니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컴퓨터는 항상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반원 중 한 명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컴퓨터에 물어보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예. 좋아요, 그럼 우리는 온전한
마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적인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데이빗?
나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 문구가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배타적인 헌신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그것을 갖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완전하고
충만하여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애정의 폭발적인 힘. 그는 약 300년 전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머스 캠벨(Thomas Campbell)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모든 것을 비워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소모하므로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헌신은
앞으로 나올 다른 모든 종류의 것들을 배제합니다.

정말 멋진 사진이에요. 유리잔의 공기를 어떻게 빼나요? 자,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어 보세요. 좋은 결과 내길 바랄 게.

아니요, 물을 채워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악한 욕망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삶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남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삶에서 그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땅의 것들은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인해 이상하게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러한 헌신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서 그분께 행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이제 다시 고대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힘에 얼굴을 대고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얼굴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나 이슈타르, 또는 고대인들이 그녀에게 어떤 이름을 붙였든 그녀는 여전히 쾌락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녀의 제단에 절합니다. 그녀는 또한 부의 신이기도 하다.

위로의 신. 솔로몬이 최후를 맞이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제 생각에 역대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두 번째 세션에서 아주 일찍 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8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온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 판단은 더욱 끔찍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였던 우리 모두는 우리 회중에서 스스로 변명하는 일들을 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치 단위로 인치 단위로.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인치 단위로 인치 단위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신 물록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흥미 롭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방황하고 있었다. 여기, 저기, 다른 곳.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늘 저녁 우리의 찬송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하고 경건한 두려움의 원칙을 주소서. 죄에 대한 민감성, 그것을 두려워하는 고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자존심이나 그릇된 욕망을 느끼는 첫 번째 접근 방법인 도와주세요. 그 타오르는 불을 꺼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장, 또는 이 구절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두 번은 뭐였나요? 우리는 몇 분 전에 첫 번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브온에서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리고 그 의미는 솔로몬이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뭐라고요? 9장. 좋아요, 결국 음주운전을 할 필요는 없군요.

괜찮은. 그렇습니다. 성전이 헌납된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요점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느니라.

왜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것은 단순히 레위 사람들이 그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넘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경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 하나는 말라기서 3장입니다. 방금 냉소주의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사기꾼들이 부자이고 편안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애도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 이런, 난 그냥,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뼈뿔어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제 옆에 와서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존, 난 믿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도 좋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같이 가자, 응? 그리고 하나님은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아, 빨리 그들의 이름을 적어 두라고 하십니다. 응. 네, 맞습니다.

확실히 맞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과정에서 격려를 주는 그리스도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의 출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다시 한 번, 우리는 지난주에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모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솔로몬에게 성실하게 걷고 그의 길을 따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솔로몬에게 성실하고 그의 길로 행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그들 각각에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축복.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적에 대한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내가 이 집을 축복하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곳을 내 이름의 장소로 만들겠다. 당신이 외면하지 않는 한.

너와 네 백성이 등을 돌리면 내가 이 집을 버려 쓰레기로 만들 것이다. 이곳에는 그 자체로는 신성한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신성함은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지만 떠나면 잊어버리세요. 또 골동품 가게로 변해버린 교회들을 보니 마음이 가라앉는다.

하지만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다윗의 집에 남겨 두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왕국을 네 손에서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데이빗을 위해서라면 너한테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당신 아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나는 네 손에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지파는 다윗에게 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1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시나요? 그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당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사건인 밋세바와 우리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식은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원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대조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흥미로웠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최종 배도를 향한 느리고 느린 진전이 있습니다.

David와 함께 당신은 고립되고 끔찍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삶의 정착된 패턴에서 예외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열왕기를 통해 열왕이 다윗이 행한 길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게 하나예요. 단순히 보상으로, 추억으로.

또 뭐야? 데이빗?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는 다윗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둘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육신적인 현존이나 경험의 증인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약간 설교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성육신 경험의 증인. 그것을 뽑아보세요.

인간의 조건에는 위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기억, 위치, 위치.

그는 다윗과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하나가 너무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어렵다. 예수! 예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위한 지파를 보존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경계, 즉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시편 2편을 보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목소리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목소리를 인용하는 시편 기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백성들의 음모가 헛된 일로 인해 나라들이 분노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폭탄을 터뜨리고 그들의 가시를 우리에게서 벗어 버리자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 이런, 맏소사.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시느니라.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2살짜리 아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나가! 아빠는 웃는다. 그 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완료된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열방을 말하고 인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부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편 기자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왕들이여, 이제 지혜를 얻으십시오. 오 땅의 통치자들이여, 경고를 받으십시오.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정말 멋진 대사 아닌가요? 떨면서 기뻐하십시오. 와, 그는 신이군요.

정말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여 너희가 도중에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그의 진노가 빨리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분께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을 위한 한 지파를 보상으로, 기억으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서 개별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는 표시로,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기초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시트에 올려 놓지 않았지만 다른 참고 자료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편 89편의 첫 4절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헤세드. 우리 수업에 누군가가 있다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배울 것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누구든지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헤세드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구약성서에서는 250번이나 됩니다. 한결같은 사랑, 사랑의 친절, 한결같은 사랑, 은혜, 자비,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에무 나(emunah)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우리가 신실함과 진실을 너무 자주 분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아이디어 집합으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의 에무나를 대대에 노래하리이다. 내가 말했듯이,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하늘에서 굳게 세우시리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과 계시의 진리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자와 언약을 세웠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대대에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세대에 열 지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것이지만 그 죄가 그분의 최종적인 구원 목적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13절을 통과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의 나머지 부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이 서술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어난 두 명의 대적이 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두 명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이 남쪽, 최남단에 있는 에돔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성인데 그는 북쪽 시리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림을 얻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가 평화로웠던 시절에도 이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서 적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벌레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신실함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팩맨.

여러분 중 일부는 팩맨에 대해 알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4절에서 주님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고,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는 또 다른 대적, 이성, 하닷을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다의 아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다윗이 행한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알려줍니다. 에돔에서는 에돔 남자를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닷은 에돔 지도자 몇 명과 함께 에돔으로 도망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성과 함께 우리는 다윗이 소바의 군대를 멸했을 때 이성이 그의 주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나쁜 감정, 이러한 반항심은 다윗의 과잉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글썄요, 다윗이 그 일을 일으켰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는가? 내 생각에 대답은 '그렇다'이다.

제 생각엔 요셉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근이 닥칠 것을 아시고 이집트에서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로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이 시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의 놀라운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악한 선택까지도요.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악한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일까지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창의적이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오늘 구약 신학 수업 시간에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이전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주 세밀한 부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길 중앙은 면도날만큼 넓고 양쪽에는 깊은 도랑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신성한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납니다. 반대편에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일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가? 예.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와 책임이 있는가? 예. 오스왈드, 그것들을 어떻게 합치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 의지의 현실을 가르치려는 시도에서 감히 주권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주권을 옹호하려고 노력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로마서의 구절과 일치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예.

나는 길고 허약한 삶을 살아오면서 5점 미적분학을 전공한 몇몇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환상으로서의 자유의지가 존재합니다.

나는 그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전환하여 '예, 자유 의지가 있으므로 신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도량에서 다른 도량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의 작은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셨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혼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투와 싸움에서 지나치게 과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이 반역자들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의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여로보암으로 갑니다. 정말 매혹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 배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봅니다.

그는 북쪽 두 부족의 강제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들은 북쪽에서 가장 큰 두 부족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으로 그는 미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그 지파 사람들이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에게 나갑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히야, 네가 가서 새 옷을 사길 원한다. 시내에 있는 하워드 밀러(Howard Miller)로 가서 가장 좋은 정장을 찾으세요. 오 좋네.

이제 나가서 여로보암을 만나라. 그가 마을을 떠나는 길에 그를 붙잡으십시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 500달러짜리 옷을 가져다가 12조각으로 찢으라고 전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여로보암 10명을 데려가세요. 10을 가져 가라.

12명은 유대이고 레위는 영토나 그런 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다는 영토를 가진 유일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가진 다른 10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들 모두에게 흠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대답은 '예'입니다. Benjamin은 상대적으로 작은 판독값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에브라임이 있고 저기에는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므낫세도 여기 강을 건너갔고 에브라임은 강까지 갔습니다.

벤자민은 여기 이 스트립이었습니다. Dan은 거기에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궤적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베냐민은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은 실제로 베냐민의 영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일부, 북쪽 지파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빠르게 유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그곳까지 확장하여

베냐민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유다 뿐이었으나 결국에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좋은.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백지 위임권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는 38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은 견고한 나라를 네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땅. 지속적인 왕조. 다윗 왕조는 3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여로보암도 같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건은 38절에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서는 정확하게 부정적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그가 나를 버렸느니라. 이혼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 예배에서 밴드 리더가 이제 일어나서 예배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할 때 나는 항상 웃습니다.

이것을 적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읽을 때마다 엎드려집니다. 당신은 예배의 자리를 맡고 싶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납작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납작할 때는 노래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는 나를 버리고 아스다롯과 밀곰과 그모스에게 절했습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가라. 우리는 이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내가 곁에 있는 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걷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점점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헌신은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의 손을 점점 더 꼭 잡고,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모든 것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가라.

그는 순종하며 견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여라. 나는 그 표현을 좋아한다.

내가 왜 히브리어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면서 옳은 일을 해보자.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 옳은 일을 하세요.

그는 내 눈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의 표현의 차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순종하고 지키라. 사실, 그것들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매우 조심하고 싶습니다. 보호하기 위해.

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르시되 네가 솔로몬이 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고 내가 명한 것을 행하며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것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라 눈아, 네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 나라를 영원히 얻으리라! 우와!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후임자가 기름부음받았습니다. 그를 죽여! 그를 죽여! 그래서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은 도망할 때 유다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도망하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머나먼 이교 땅에서의 그 시절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그가 내린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지켜라! 도와주세요.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자부심이나 잘못된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의지의 방향을 붙잡고,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해. 좋은 시작에 대해 주어지는 상은 없습니다.

경주를 마치면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계명을 알고 행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이번에도 적군이 우리에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악한 신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이 살도록 창조된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쪽에 늪이 있어요 .

당신은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요. 내 손을 잡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늪에서 보호할 것입니다. 내 눈을 살펴보고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여라. 내 율레와 계명을 지키라.

아멘. 이 어렵고 어려운 그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접촉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을지 슬퍼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속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속았습니다. 그의 지능에 속았습니다. 그의 엄청난 부에 속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받는 유혹의 수준은 그의 유혹 수준과 거의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소서. 길 끝까지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